

장흥군, 탐진강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3억 원 투입...공인규격 갖춘 파크골프장 개장 김성 군수 "주민 여가활동 지원·전국대회 유치 추진"

장흥군이 올해 13억 원을 들여 탐진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탐진강파크골프장은 공인규격을 갖춘 18홀 규모다. 장흥군은 파크골프장 개장에 앞서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 사용료 책정, 시설물 운영 근거 마련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경기장이 부족한 편이다. 관산파크골프장(9홀)을 제외하면 기존 폐교와 운동장을 활용한 경기장 2곳이 있을 뿐이다. 이곳 역시 회원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탐진강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좋고 토요시장과도 가까워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기대가 높다. 김성 장흥군수는 "부족한 파크골프 경기



장을 확보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농업인도 스마트하게"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진행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

해남군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선도하고, 선진기술의 보급을 위해 각종 농업인 교육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올해 해남군 농업인 교육으로는 장기교육과정인 해남장조농업인대학, 단기교육과정인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전문농업인 대상 원스톱 집합 컨설팅 등 5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장조농업인대학은 과정당 70시간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창업 총 2과정을 운영한다. 청년농업인 창업과정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과정은 스마트팜에 관심있는 해남군 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론교육과 현장 견학 병행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은 각 15회씩 운영하며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교육은 기초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해남군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전문농업인 대상 원스톱 집합 컨설팅은 품목별 농업인 단체(연구회, 법인) 대상으로 품목 관련 재배기술, 유통, 가공 등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7회 2,791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식량작물(벼), 원예작물(고추), 친환경 농자재, 미생물, 한우 등 총 5과정으로,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과정은 대면교육 영상을 SNS에 게시해 교육 미참석자 또한 수강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은 2월 24일까지 교육 수강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tc.haenam.go.kr/>)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육성팀 ☎061-531-3833, 3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로 안전한 산행 충혼탑 인근 등산로·주작산 자연휴양림 내 등 3개소 설치

강진군은 진드기 등 곤충에게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3일 주요 등산로 입구 3개소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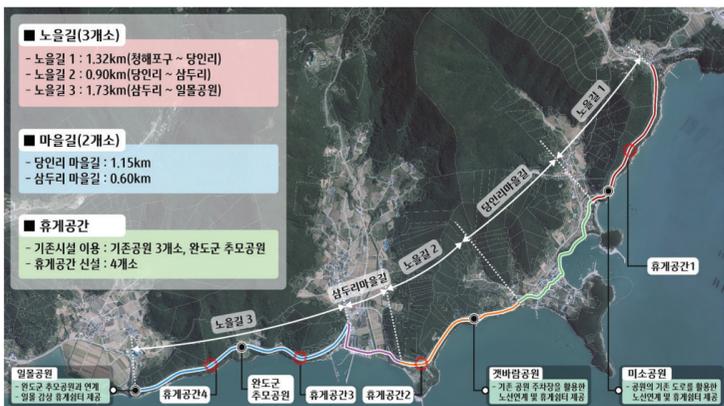
충혼탑 인근 등산로 입구, 고성사 인근 등산로 입구, 주작산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됐으며, 주민과 등산객이 편리하게 기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

군이 있다.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질환은 예방 백신 및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아,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진드기 기피제는 진드기가 사람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해 물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강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피제 분사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해안 도로 따라 '가리포 노을길' 조성 박차 국비 40억 투입...완도읍 대신리~군외면 대문리 4km 구간 조성

완도군에서는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리포 노을길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리포 노을길이 조성될 완도읍 대신리에서 군외면 대문리까지 국도 77호선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해안 경관이 뛰어나며 일몰이 장관이어서 드라이브하기에 좋다.

이에 군은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6km 구간에 노을길을 조성한다.

가리포 노을길은 완도의 주요 관광지인 소세포 세트장과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조성될 완도수목원을 연계하고, 한 쪽의 그림 같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포토 존과 쉼터, 경치 좋은 곳에 경관 전망대와 조형물 등

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설계 역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도 77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해안 경관이 뛰어나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는 미소공원과 갯바람공원, 일몰공원 등 3개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km(15분 소요)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용이해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 및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찾아 타트인 바다, 노을 등을 바라보며 힐링하기에 좋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56개 마을에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350만원 지원...농업 생산성 높이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 기대

진도군이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농번기철 영농에 집중,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의 대상 마을은 급식 종사자와 공동 급식 시설을 갖춘 56개 마을에 지원금액은 마을당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는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에 도시락과 반찬 배달,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군은 일손이 부족한 바쁜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절약해 농

사에 집중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화합 분위기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